

청와대 “개헌 당론 채택 없으면 18일 발의”

사실상 ‘최후 통첩’... 국회와 정면대립 예고

6개 정당 및 교섭단체의 개헌논의 유보 합의에 따라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는 듯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의 12일 발의 강행 의지 표명으로 다시 증폭될 조짐이다. 청와대가 늦어도 16일 오전까지 차기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혀야 한다고 테드라인과 주문 내용을 사실상 최후통첩 형식으로 제시함에 따라, 의표를 찌린 정치권이 다시 발끈한 것. 협상 내지 대화로 끝날 것 같았던 개헌 논란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17

윤 수석 “유보 보도는 잘못”... 한나라당 즉각 거부

일 국무회의의 개헌안 의결, 18일 발의라는 승부수를 띄우는 형태의 ‘정면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청와대 입장을 ‘어차피 안될 개헌, 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이는 정략개헌’ ‘명분있는 퇴각’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는 청와대 흐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개헌안 발의에 대한 청와대의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언론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직 이해 못하시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의 정치적 부담에 대해 윤 수석은 “그건 다음 문제”라며 18대 국회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당론 확정 및 대국민 약속이 없으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이날 개헌발의 강행 가능성 시사에 대해

정치권은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오만한 제왕적 발의”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미 강제적 개헌이 지난달 8일 ‘차기 국회에서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이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 있으며 당 소속 대선후보들도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따라서 오늘 오전의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별도로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박상천號에 거는 기대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박상천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출범 2주제를 맞고 있다. 당초 박 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 박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박 대표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범여권과의 통합 등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려의 배경이었다.

또한, 박 대표가 민주당 분당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 세력과 심각하게 대립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왔다. 박 대표가 차기 총선 등에서 기독교 유지를 바라는 원외위원장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당권을 쥔 것이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표와 통합과 성향 현역의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심각한 내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됐다.

그러나 박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오히려 통합의 물꼬를 트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박 대표는 장상 전 대표를 지지했던 현역의원들을 지도부에 진출시키는 등 화합령으로 당내 체제 정비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그동안 통합신당모임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오는 5월까지 중도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내에 국회의원 40석 규모의 교섭단체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상천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당 추진위원회 구성을 놓고 통합신당모임 측이 이익을 제기하는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고집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등 통합신당 창당의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살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왕따’가 된 열린우리당과 민생정치모임에서는 이번 통합은 ‘도로 민주당’에 불과할 것이라며 탄지를 걸고 있다.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독교에 연연, 결과적으로 통합의 흐름을 비켜간다면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 존립은 물론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민중 세력의 집권을 마감하고 보수 세력에 정권을 넘겼다는 역사적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4선 의원과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박상천 대표가 난마같은 통합신당 퍼즐게임에서 어떻게 풀어낼 지 지켜볼 일이다.

/tuim@kwangju.co.kr

범여권 잠재적 대선주자 문국현 사장 광주 특강

“나는 해결사 아닌 제안자”

당장 대권 도전할 뜻은 없어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문국현(사진) 유한킴벌리 사장은 지난 11일 “나는 많은 제안을 하고 정책을 받아들이는 걸 바라지 내가 다 해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이날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으로 가진 특강을 마친 뒤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당인이 아닌 기업인이고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느라 많은 생각을 못했는데 나를 훌륭하게 봐 주시고 갑니다”며 당장 도전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문 사장은 “국민이 지쳐있고 낯은 패러다임으로는 사회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거와 다른 창조적 리더를 찾게 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탁류’ 같은 부패와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를 부르는 관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사회지도층, 기업인, 학자 등 집단들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이에 앞서 특강에서 “대기업이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줘야 하지 외형만 봐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지난 40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파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3률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우리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만 하지 우



리가 좋은 직장인지, 좋은 대학인지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좋은 사람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앞으로 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또 남을 기업은 남을 것”이라며 “(가칭)미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하루빨리 대비해야 하고 특히 농업과 농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등 꼭 지킬 것을 선택해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세계가 관심을 갖는 기업의 책무는 인권·노동권·환경 보호와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메인 스트림과 떨어진 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사실은 한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반 기업 정서가 강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은 기업이 (국민에) 신뢰를 못 준 것이 원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기업이 잘 맞는 등 할 일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 우리 국민 모두는 기업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해 운구하는 징병들

12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유해 송환 행사에서 장병들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6구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운구하고 있다. 유해와 함께 한국으로 온 빌 리처 드슨 미국 뉴욕시도 주지사 일행이 빌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통합신당 금물살에 지역 국회의원들 고심

우리당·민생정치 모임, 정치적 선택 폭 좁아져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의 통합신당 창당 논의가 금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열린우리당과 민생정치모임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및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통합신당 합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정치적 선택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의 신

당 창당은 대선보다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에 불과하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국 대통령의 한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지병문 열린우리당(광주 남) 의원은 “통합을 한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차기 총선을 대비한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인 김성곤(여수

갑) 의원은 “양측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찬성이지만 창당에는 반대한다”며 “앞으로 여러가지 진통이 있겠지만 결국 대통합의 한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민생정치모임 소속 지역 의원들은 통합신당 창당에 합류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윤근(광양·구례) 의원은 “통합신당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조만간 통합신당에 합류하겠다”며 “민생정치모임 소속에서는 유선호, 제종길, 이종걸 의원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큰 나무는 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55년을 지켜온 정론, 광주일보 —



지상의 낙원—

상/그/릴/리



(주)해광건설

(주)해광중합건설 (주)해광산업개발 (주)해광상/그/릴/리 (주)해광문화재단

회장 이주현외 임직원일동